■ 한나라 강재섭 대표 선출 의미와 과제

‘朴-李 대리전’ 앙금 털기 급선무

〈근혜〉 〈명박〉

朴 전 대표 대선후보 경선 유리한 고지 선점

후유증 불보듯…97년 대선 악몽 재현 우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리전 논란 속에 치러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박심’(朴心)을 앞세운 강재섭 의원의 막판 역전극으로 막을 내렸다.

경선 초반만 해도 이재오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강한 대표론’으로 여론을 선도해 갔으나, ‘박심’을 업은 강 의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박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전당대회 중반까지 ‘엄정한 중립’을 표방했으나,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박 전 대표 측근들이 강 의원 지지 운동에 나섰고, 박 전 대표도 직접 당내 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이재오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전 시장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라며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표심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여기에 민중당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겨냥해 정체성 시비를 제기한 것도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 강재섭 대표 체제의 등장으로 박 전 대표는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새 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내년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전여옥 의원이 최고위원단에 합류,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전 시장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우선 이재오 의원을 측면에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박풍’에 밀렸다는 점에서 당내 영향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당권 경쟁이 당내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 되면서 후유증도 심각할 전망이다. 가장 큰 후유증은 차기 대권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점이다.

이번 대표 경선과 관련, 대선 후보들의 외곽 세력까지 동원됐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 각 유력 대권 후보들을 향한 의원들의 줄 서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내부 균열로 인해 내년 당내 대권 경선을 앞두고 당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이번 경선에서 스스로 강조해 온 ‘엄정 중립’ 원칙을 깬데다 강 신임 대표 또한 경선에서 노골적으로 ‘박 전 대표 편’을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대선후보 관리 여부도 논란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가 당을 탈당해 패배한 악몽이 재현되지 않느냐는 말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새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재섭 후보와 최고위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형근, 이재오, 강재섭 새 대표, 전여옥, 강창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득표율

	대의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합 계
강재섭	4천299표	955표	5천254표
이재오	3천368표	1천423표	4천791표
강창희	2천71표	555표	2천626표
전여옥	833표	1천161표	1천994표
정형근	1천339표	654표	1천993표
권영세	1천223표	540표	1천773표
이규택	847표	809표	1천656표
이방호	735표	214표	949표
총 계	1만4천725표	6천311표	2만1천36표

검사출신 5선…‘정통보수’ 자처

강재섭 대표는 누구

한나라당호의 새 선장으로 선출된 강재섭 대표는 40대에 이미 “국회의원은 3번으로 족하다”며 대권 의지를 키워온 대구·경북(TK) 지역의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 13대 국회에서 전국구로 정계에 입문한 뒤 대구에서만 내리 4번 당선돼 김덕룡 박희태 이상득 의원과 함께 당내 최다선(5선) 반열에 올랐다. 2004년 ‘탄핵 역풍’ 당시 TK 의원 모임을 주도하면서 최병렬 대표의 사퇴 결심을 이끌어냈고 수도권 소장파들을 설득해 ‘박근혜 유일대안론’을 확신시키는 등 ‘박근혜 체제’의 등장에 기여했다.

지난해 3월 원내대표로 선출돼 당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9개월여만에 물러났다. 이후 대선캠프를 차려 대권도전 의지를 다지던 중 당권으로 ‘유턴’했다.

부인 민병란(55)씨와 1남1녀.

▲경북 의성(57) ▲서울 법대 ▲청와대 정무·법무비서관 ▲민자당 기조실장 ▲신 한국당 대변인·총재비서실장·원내총무 ▲국회 법사, 정치개혁특위원장 ▲한나라당 부총재, 최고위원, 원내대표 ▲13,14,15,16,17대 의원

DJ “미사일 발사 北에도 손해”

김대중(DJ·사진) 전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북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사일 발사)는 북한에게도 손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사저에서 신임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결과 미국의 네오콘들과 일본의 재무장 세력들이 절씨구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국민의 90%가 군사대국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한과 미국, 일본에서 북한을 도우려는 양식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각료들의 ‘대북 선제공격론’ 주장 등 우경화 흐름에 대해 그는 “일본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로 6월 방북을 연기한 것과 관련, 김태랑 사무총장이 “가을쯤 재방북하시면 어떤가”라고 건의하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방북 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희정 유럽서 정계개편 연구?

친노직계와 불·독 등 다녀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안희정(42·사진)씨가 지난 3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이화영, 조정식, 백원우, 최재성, 민병두 의원 등 친노(親盧) 성향 의원들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뒤 11일 귀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씨는 이들 의원들과 함께 프랑스 사회당을 방문, 내년 4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과 중앙당 및 지구당 준비 과정, 당원 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씨는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 간부들과 면담, 독일 대연정의 전망과 당 강령 개정과정, 당 개혁 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씨가 정계개편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안씨가 친노 그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씨가 열린우리당의 분당 등 정계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당 멤버들과 함께 독자적인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씨가 한나라당의 분열 등을 감안, 다당제로 대선을 치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느냐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 시 최 고

사 건 2006카공 33
신청인 이동식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1008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10. 30.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앞수표
· 번 호 : 86599673
· 금 액 : 금 500,000원
· 발 행 일 : 2006년 6월 12일
· 발 행 인 : 화원농업협동조합

2006년 7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부 한

공 시 최 고

사 건 2006카공 34
신청인 배한경
여수시 국동 706-3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6. 10. 30.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앞수표
· 번 호 : 바가 17454001
· 금 액 : 금 80,000,000원
· 발 행 일 : 2006년 6월 27일
· 지 급 처 : 완도수협 보길지점
· 최후소지인 : 배한경

2006년 7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 부 한

어음·가게·담보

♠어음1,000萬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

산행안내

▲광주마운틴클럽 광복 양터 원각산 7월13일(목) 07시 광주역 출발 T.062-232-0525, 010-6660-5213

▲기아교통산악회 한밭 알림출발 7월13일(목) 08시 광주역 매표소앞 출발 T.011-605-5034, 011-601-8238

▲상무관광산악회 대마도 이국체험 아리아나 2일째 김해공항 및 관광 7월13일(목) 08시 광주역 출발 ※7월26일 대마도관광 여행사수수료 배그랜드 9월일정 예정 T.062-351-1900

▲청동산우회 지리산 화엄산천산행 7월13일(목) 08시 동해미화점 집결 출발 T.011-9601-4421

▲광주마운틴클럽산악회 광복 양터 월각산 7월 13일(목) 07시 광주역 출발 T.010-6660-5213, 232-0525

▲광주한국산악회 화도 보길도 예자봉 광릉가리산 7월13일(목) 06시 30분 염주체육관 08시30분 문예회관후문 앞 출발 ※예약필요 T.011-615-2279

▲광인산악회 한국 전망 중저개국 7월13일(목) 08시 광주역, 08시25분 롯데백화점 스텐 출발 ※도중에 광주발 만원시 T.011-624-1326

▲유산회 천마산종주 예약제산 미시령-한계령(대청봉 설악봉 공룡능선) 7월16일(일) 22시 광주역 공영주차장 출발 T.011-641-0254

▲광주지리산악회 종주 지리-어림봉 7월16일(일) 07시 남구청 주차장 집결 ※주제석식 안함 T.011-609-5547

▲광주토요산악회 리마사 능비봉-벽파항 7월15일(토) 08시 광주역, 08시 10분 문예회관후문 출발 http://cafe.daum.net/gwangjutoyo T.011-608-4267

▲광주등산클럽 제1차 영산봉 7월15일(토) 07시 30분 광주역 제1터미널 출발 T.011-605-3477

▲광주나사모산우회 덕유산 설원계곡 7월16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http://cafe.daum.net/gwangjunasamo T.062-525-7223

▲보리미산악회 덕유산계곡산행 7월16일(일) 08시 광주역 한국시멘트 08시5분 동아동 든 방문, 08시 10분 광해나그네공원 출발 T.011-645-7796

▲광주우보회 일대 강원산 골등산 옥계계곡-포항 대왕암 보경사 12곡포 1박2일 산행 7월16일(일) 06시30분 염주체육관, 07시 남구청 출발 T.011-9600-5364

▲광주한강산악회 지리산 대원사 종주 7월16일(일) 06시 광주역출발 T.222-3253, 010-7619-6559

▲전남산악회 지리 덕산-법계종주 일정 7월16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0-9776-3830

▲새무등산악회 한북 이미산 대혜폭포정 7월16일(일) 08시 대인공원 서원점 앞 출발 T.011-616-6300

▲대정산악회 경남 산청군 웅석봉 경호강래프팅 7월16일(일) 06시 30분 염주체육관정면 공원출발 ※다음주제 - 공주대종산악회 T.017-604-0606

▲광주산사랑무등산악회 지리산 법사봉-제아봉 지곡산행 7월16일(일) 07시30분 두동농협앞후문 앞 출발 http://cafe.daum.net/sangjungmoo-bin T.010-7171-2682, 011-602-5224

▲다름카페(사)우산알수산악회 월학봉 삼장산-장지사 7월16일(일) 08시 남광주역 남광주역 통광주중앙역 출발 T.011-620-2002

▲광주빛고을의오름회 강원도 횡도 해안선 7월16일(일) 08시30분 광주역 출발 T.010-7619-0559

▲광주광산우회 지리산 방장산 종주 7월16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1-609-7159, 010-6601-9774

▲호남산악회 부여 미륵산 대혜폭포정 7월16일(일) 07시30분 광주역 광주은행앞후문집결 무등월 T.010-6246-7231, 011-605-5094

▲광주원산우회 서울 북한산원정 7월16일(일) 06시 중앙역 육상경기장 공원출발 ※다음주제 - 공주대종산악회 T.017-604-0606

▲광주목요산악회 충남 보은군 삼년면 마니봉 7월20일(목)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1-8984, 011-441-8345

▲물길산악회 전북 진안-운일암-반일암-운장산 7월20일(목) 08시 상무회관 08시10분 동아동공원 출발 T.011-602-3515

▲침단산악회 지리산 종주 7월20일(목) 08시 광주역 앞 수무관광버스 출발 T.011-602-4972

▲거북이네미산악회 지리산 한신계곡 7월16일(일) 07시30분 현대백화점 앞 ※이달 산행 http://cafe.daum.net/jirisan T.010-3051-3252, 016-680-7980

▲정문산악회 충남 서도 태안군 수국폭포 7월17일(월) 07시 충정공원, 08시 5분 광주역, 08시20분 문예회관후문 앞 출발 T.011-644-6805, 017-589-7800

▲광주영천산악회 강원도 하계산림 7월17일(월) 08시 한국식품, 08시10분 문예회관후문 앞 출발 ※차 감기에 광주영천산악회 T.011-226-2877

▲광주산우회 지리산 화엄계곡 7월20일(목) 07시 남구청 주차장 집결 ※이달 산행 http://cafe.daum.net/jirisan T.011-602-3515

▲광주지역보존산악회 한수산 대혜폭포종주 7월20일(목) 07시 무등경기장 정문 앞 집결 출발 ※cafe.daum.net/jirisan T.010-608-3604, 016-674-2900

▲요산회 지리산 반야봉 고동리 지리산 7월20일(목) 08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41-0254

▲요산회 일대 제1차 화도 보길 원정 7월23일(목) 07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10-573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의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번	기수	비고
담양군 수북면 두정리	산26-6	1기(1번 무연분묘)	
담양군 수북면 두정리	산25	1기(2번 무연분묘)	

2. 개 장 사 유 : 주택신축(재산권 보호)
3. 개 장 안 내 공 고 기 간 : 2006. 6. 12~2006. 9. 12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연고자이장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 이장
5. 이 전 장 소 : 전북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6. 신고 및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3-4번지(유)코주레기업 임철계(휴대폰 011-611-4414)
▪담양 수북면사무소 복지담당(☎ 061-380-8922)

2006년 7월 12일

공 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호헌)가 2006년 7월 10일 오직 헌법을 수호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장로교회로서의 종교개혁의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는 일에 보다 더 진실하기 위하여 과거만을 답습했던 구태의연한 삶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노회를 이루기 위해 새롭게 노회를 조직·구성하고서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호헌)장
정 종 남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 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한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체구성

분양! 청담과 상의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청담 D&C
062)382-4984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062)381-0049

• 광주권 아파트/토지/상가·건물-매물접수
• 아파트 분양권 전문-분양권매매 상담환영
• 아파트 부지 구함
• 이주자 협의택지 구함
• 필요하신 부동산 구해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상담 환영

모든 중고차 최고가 매입

(주)썬모터스 [허가번호 410-86-00894]
법인업체와 거래하셔야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할부 최장 36개월 A/S 3,000km 보장
011-249-0060 / FAX.062-954-4848
믿음 정직 신용 을 철칙으로 합니다!
이사 : 문영기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판매(타사 보청기 환영) 세계최첨단
독일보청기 97%채널방식 / 100%디지털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도움이 됩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신터미널 건너편 6층(광림빌딩603호)
☎062)222-1510 이)573-5106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호헌) 선언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53년 6월 10일 새 역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바리새주의의 타파, 복음과 신앙의 자유, 자립자조의 정신, 세계교회와의 연대 정신을 구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으로 제38회 호헌총회의 정신에 충실해 왔다. 특히 전남노회는 교단의 잠자노회로서 이에 충실했고, 갱신과 개혁의 과제가 요청될 때마다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녀왔다.

최근의 전남노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유린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회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교회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성서를 근거로 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헌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들이 걸어온 신앙고백적 삶에 반하는 것이요, 사도적 교회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다.

노회는 교회의 전통과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고, 헌법의 수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가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런데 전남장로회 실행위원회는 그들만의 결의로 노회 내의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지난 5월 10일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그들이 배포! 한 문서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무참히 깨뜨리는 도발적인 행위이며, 소위 권당주의자들이 그동안 간직해 왔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발상과 편의주의, 그리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저지른 헌법의 파괴 행위이며, 교회의 권위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피는 것이 본래의 직무이다. 그러나 전남장로회 실행위원회는 임의단체로서의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서신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일념으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고유한 소명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장로가 설교, 축도 할려고도 않지만 노회장은 성찬 및 안수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출되어 노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라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목회장로, 치리장로”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논리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개혁신학의 파괴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깨뜨리는 해악적인 행위인 것이다.

5.10교권유린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남노회는 지금까지 금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제108회 정기노회 둘째날에 벌어진 목사임직예배 방해사건, 5.10교권유린사건, 제108회 1차 임시노회에서의 잘못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폭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노회 본연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행정력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노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도적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방관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 또한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노회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과 더 이상 노회를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우리는 오직 헌법을 수호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장로교회로서의 종교개혁의 올바른 전통을 계승하는 일에 보다 더 진실하기 위하여 과거만을 답습했던 구태의연한 삶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노회를 이루기 위해, ‘전남노회(호헌)’로 모이고자 한다.

‘전남노회(호헌)’의 문은 열려 있다. ‘전남노회(호헌)’는 도농을 떠나 진정한 형제교회로써 우의를 다지며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교단 안에서 명실상부한 장자노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온전한 노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교적 방향을 선언한다.

1. 전남노회(호헌)는 성서와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복음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하는 노회를 이룬다.
2. 전남노회(호헌)는 지난 50년 새 역사 전통을 가진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의 권위와 그 올바른 시행을 수호하는 노회를 이룬다.
3. 전남노회(호헌)는 직분과 은사에 따라 효율적인 일의 분담을 분명히 하는 직능적인 노회를 이룬다.
4. 전남노회(호헌)는 지교회를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일에 전력하는 섬기는 노회를 이룬다.
5. 전남노회(호헌)는 세상적인 힘의 지배논리를 벗어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노회를 이룬다.

전남노회(호헌)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호헌총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노회를 이룰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주후 2006년 7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호헌)